

January

2007

Sun 일	Mon 월	Tue 화	Wed 수	Thu 목	Fri 금	Sat 토
<p>2007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자</p>	<p>1 아버지, 100년 전 북한 평양에서 아버지께서 시작하셨던 그때와 같은 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</p>	<p>2 교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지도자들과 성도 모두가 회개와 겸손의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</p>	<p>3 아버지, 모든 세계가 아버지를 알도록, 교회의 연합,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</p>	<p>4 아버지, 교회들이 올 한해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기를 기도합니다</p>	<p>5 아버지, 북한 개방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'내 번째 강' 계획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</p>	<p>6 '예수 공현'의 축일 삼수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비추소서</p>
<p>7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. 요 14:16</p>	<p>8 아버지, 올 한해 북한이 아버지의 복음으로 열리길 기도합니다</p>	<p>9 아버지, 추운 겨울을 맞은 북한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</p>	<p>10 'Transformation 2007' 올림픽 경기장에서 북한에 관해 말씀 전하시는 벤 토레이 및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</p>	<p>11 이번 주 서울에서의 'Transformation 2007'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대번혁의 시작으로 사용하소서</p>	<p>12 아버지, 매달 기도 달력의 초안을 만드는 신실한 형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.</p>	<p>13 아버지, 북한과 올림픽 경기장에서 의 집회 위에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소서</p>
<p>1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 행 1:8</p>	<p>15 100년 전 1907년 1월 14일 성령께서 임하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기억하소서</p>	<p>16 아버지, 북한 전역에 생존의 필수품인, 음식, 실, 옷가지, 등이 잘 공급 되길 기도합니다</p>	<p>17 아버지, 북한을 돕는 모든 기독교 단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. 아버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소서</p>	<p>18 아버지, 세계 전역의 활발한 기도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올 한 해 북한을 위한 기도자로 부르심을 기도합니다</p>	<p>19 아버지, 매달 이 기도 달력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신실한 자매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</p>	<p>20 올 봄에 시작될 삼수령 센터 건립을 돕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</p>
<p>2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, 의에 대하여,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. John 16:8</p>	<p>22 아버지,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회개하게 하심에 압도되게 하소서</p>	<p>23 아버지,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 하심이 북한의 고통 받는 자들에게 임하소서</p>	<p>24 아버지, 북한을 돕는 모든 국제 협력기구를 위해 기도합니다. 올해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게 하소서</p>	<p>25 아버지, 남한에 북한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교회와 정부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소서</p>	<p>26 미국에서 있을 5, 6월의 북한학교 준비와 7, 8월의 삼수령에서 있을 노동 학교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</p>	<p>27 오는 봄 삼수령 센터의 건설 시작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</p>
<p>28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. 요 16:13a</p>	<p>29 아버지, 북한의 지도자가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기도합니다</p>	<p>30 아버지, 먹을 것과 자유를 찾고 고향을 떠난 이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소서</p>	<p>31 아버지,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 합니다.</p>	<p>"사람들이 뒤를 이어, 일어서서,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, 쓰러져서 울었다. 그리고 바닥을 구르며 죄 깨달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. 우리집 요리사는 죄를 고백하러 애써며, 그 바닥 중앙에 엎드려 울며 방을 가로질러 내게 왔다. '목사님, 알려주세요, 내게 어떤 소망이라도 있습니까?', 내가 응서받을 수 있나요?' 그리고는 바닥을 구르며 울고 또 울었다, 그리고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. 고백 후 때때로 전체 성도들은 갑자기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였다. 수 백명이 함께 통성으로 하는 기도의 영향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. 다시, 다른 사람의 고백후에,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고,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다.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.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고백, 통곡, 기도로 새벽 두시까지 계속되었다."</p> <p>Graham Lee--"평양에 오신 성령님" William N. Blair, 1910 <u>The Korean Pentecost</u> 에서 발췌</p>		
	<p>1907년, 평양대 부흥이 시작되었던 장대현장로교회</p>		<p>김정일을 숭배하는 현재의 평양.</p>			